

기획시리즈 미지근한

민족자주성과 역사적 사명 의식을 절실히 요구하는 한반도



글씨는 차례

1. 국제정세 개괄
2. 변화하는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
3.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대응
4. 북한의 현실노선
5. 남한의 흡수통일노력과 미국
6.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7. 현실적인 통일방안과 그 전제조건
8. 총괄

날로 강화되는 미국의 개입...한반도 전쟁가능성 높아져

△장시기는 "적변하는 세계정세와 한반도의 재통일이라는 7차대의 기획을 정리하기 위해 오늘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부족했던 내용을 보충하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내용을 논의하도록 합니다. 먼저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서유럽 내내 통일로 돌아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동유럽에서 소련과 동구권의 변화, 그리고 Gulf전 이후 경제, 정치전략에서의 미국의 지배체제강화 등의 점점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는 "지금 남북한과 동북아시아에서 핵문제가 쟁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핵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군축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국제정세를 살펴봅시다. 첫째, 탈냉전의 성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냉전의 종식'이라는 점에서 탈냉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은 소극적이며 평화이며 소련과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미국 중심의 단일한 세계체제의 귀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둘째, 탈냉전의 성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냉전의 종식'이라는 점에서 탈냉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은 소극적이며 평화이며 소련과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미국 중심의 단일한 세계체제의 귀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김 창 수

Gulf전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과 최근 한국의 신국방전략이나 전시접수국 지원원정단 등도 보더라도 결코 평화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미국 부시의 '신국방전략'이라는 것도 과거 미소양국의 대결체제가 분화되면서 생기는 힘의 공백을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물론 군사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여전히 군사력이 세계정세를 규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두번째로 Gulf전 이후 세계관계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가란 문제인데, 이것은 소위바르샤바 동맹과 국제관계에서 인류공통의 문제를, 환경이나 질병, 마약, 핵문제를 급속하게 부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언급해왔습니다. Gulf전을 예로 들면 미·소가 상호의존, 상호협력관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도 하지만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권과 패권을 유지했던 강대국과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세번째는 동북아시아에서도 70년대 중반부터 유럽에서 나타났던 유럽안보 강화회와 같은 '동북아시아 집단안보 강화회'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고트비히 등장은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소극적이지만 이러한 논의가 있었고 그 일환으로 남한의 노경원이 2+4회담, 4+4회담을 주장했었고 또 당시 야당의 김영삼이 '6개국 의원의회의'를 제안하면서 동북아 6개국에 안보협력체제와 유사한 맹약 요소들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크라스노야르스크'연설을 통해 본격적으로 소련이 태평양양귀암을 선언하면서 관심이 되어왔고 89년 일본 후쿠시마 수상도 동북아 평화회의 창설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태평양지역국가가 아닌 한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약화를 우려해서 이를 반대하자 과거 애매한 입장을 취했던 일본이 직접적 반대를 표시했고 노태우 대통령이 역시 갑자기 동북아의 상황은 유럽과 다르므로 집단안보강화는 성립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미국과 남한측에서 다시 집단안보강화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김창수는 "그런데 동북아 집단안보체제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이 조금 주춤했다가 다시 거론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창수는 "일본으로서도 당연히 거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새 수상의 지론이 자위대의 해외파병인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중국이나 한국, 동남아, 자국으로부터 적국적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즉, 자위대 해외파병을 통해 일본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일본의 군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집단안보강화체제라는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용

하다고 생각했으리라 판단합니다. Gulf전 직후 고트비히의 제안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일괄된 정책은 "소련이 아태지역에 '무임승차'를 해서 안된다. 대신 댓가를 치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진 댓가를 치워야 한다는 것이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로 참여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던 것이지요. 미국이 아태국가가 아닌 지리적인 불리함 때문에 소련의 해군비행기가 이 지역에서 강화되는 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미국이 일본, 한국과 전시접수국 지원원정을 체결하면서 한·미·일군사동맹체제를 강화시켜 내고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미국이 이 지역 국가가 아니라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즉 미국은 NATO와 유사한 형식으로 동북아를 군사블록화시켜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지요.

△장시기는 "그런데 미국에서 미국의 일본에 대한 신뢰감이 강화된 것이군요. 즉 Gulf전 이후 군사력에 있어서 각 지역권의 분산화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김창수는 "그렇지만 이것이 반드시 군사적 측면에서의 마일 협력관계 강화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군요. 오히려 미·일간 군사적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잠재적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본의 단계적지위향상이 결국은 미국중심의 단일체제에서 일본과 나토의 3국체제로 될 것을 예상하기도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일본의 자

역사의 진보 따라 민족자주성 보장하는 방향으로 통일운동 전개해야

위대 과업이나 군국주의화가 비·일간의 군사적협력체제로만 반드시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장시기는 "현재 미국을 추기 혹은 말기 자본주의로까지 얘기하지만 군사력의 성격은 좀 변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제력과 군사력 측면에서 강선생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김창수는 "소련이 양극체제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판단에서 미국과 일본사이에 어느정도 지속되는 한 동북아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동북아에서 보장된다는 것이 사실상의 맥락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일본이 군사대국화된다면 미국에 불리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일단 이러한 것은 소련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적 추세는 말하든 2가지 측면 즉, 세계의 보편적 측면과 우리를 중심으로 한 특수성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죠. 보편성으로서의 탈냉전은 힘의 논리에 의한 투쟁의 긴장이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해야 하지만 한반도에서의 탈냉전이 적용되는가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노



장 시 기

골적인 북한에 대한 위협과 경제공세, 강제역사할 위협 등이 계속해 단기간으로 는 사태의 악화로 예민하게 대립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세계질서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군사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패권은 불가능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Gulf전 이후 초강대국 단일패권주의는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독일, 일본, 미국의 3국 질서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예상됩니다.

독일은 EC국가들의 연합을 통해 경제, 군사, 도덕적으로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데, 일본의 경우 미국시장진출이 저해된다면 일본 경제대국으로 존속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일본이 요즘 동남아 시장 개발에 역점을 두는 것도 너무 미국 시장 일탈도이기 때문에 미국과 대립되면 상품시장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본과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흔들리지 않고 강화되고 있고 상당한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했습니다. 미국이 여세를 몰아 북한을 위협하고 세계적 화약고가 중동에서 한반도로 전이됐거든요. 이런 위기국면에서 북한이 UN보편가 입이라든지, 핵사찰에 유연하게 대응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모두 인식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통일문제를 이야기할 때 남한에 대해 북한이 집어삼켜지는 현상이 불가피할 경우는 반통일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통일운동 역시 민족적차원에서, 민족운동의 전술적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보다 역사의 진보, 민족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남한의 정권, 지배계급은 흡수통일을 분명히 구상, 대비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적인 통일을 하게 될 때 가장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노동자 계급인데, 현재 남한의 노동자들은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중독의 노동자들이 통일에 대해 무방비상태였기 때문에 엉겁결에 당한 것이 그

들이 충분히 일관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끝내지 못한 내부분열상이 큰 요인이었습니다. 새롭게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강화되고는 있는데 선거국면의 중요성 속에서 92-93년의 진앙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는 "이 역시 선거국면에서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둔다는 데 대해 동감합니다. 87-88년을 뒤돌아보면 83-84년부터 전략적 단계로 얘기하며 많은 강조를 했었습니다. 선거국면에서는 객관적인 정권교체를 하는 조건으로 바라보지 않은 점과, 우리민중운동의 발전에 주체적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 오류

△장시기는 "이 역시 선거국면에서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둔다는 데 대해 동감합니다. 87-88년을 뒤돌아보면 83-84년부터 전략적 단계로 얘기하며 많은 강조를 했었습니다. 선거국면에서는 객관적인 정권교체를 하는 조건으로 바라보지 않은 점과, 우리민중운동의 발전에 주체적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 오류

△김창수는 "이 역시 선거국면에서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둔다는 데 대해 동감합니다. 87-88년을 뒤돌아보면 83-84년부터 전략적 단계로 얘기하며 많은 강조를 했었습니다. 선거국면에서는 객관적인 정권교체를 하는 조건으로 바라보지 않은 점과, 우리민중운동의 발전에 주체적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 오류

신제국주의 문화가 포스트모더니즘들을 통한 민중의 삶에 침투를 경계

학생운동에서의 문제점을 먼저 짚어본다면 일사불란하게 버려졌던 것을 가장 크게 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한사람의 이종구 국방장관의 93년도에 북한이 남승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부들이 공안탄압의 필연적 산물이라며 자기 이론에 제멋대로 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투쟁을 벌이지 못하고 예전했던 식으로 이종구는 사상적 오류가 심했거든요. 또한 조직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 많은 학우들의 자주적진출 요구가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우들과 함께 단명한 문제를 토론하지 못하고 또한 담내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술적 측면에서도 민중들의 민주적 요구들을 정서화, 강령화시켜내고 마·노와의 대립전선을 갖는데 실패하여 거국총파업과 수렴, 내각총사퇴 주장 등으로 그들의 정치적 지향을 높여가지 못하고 상층에서 선연적인 승모진을 외치다가 민중들과 떨어져 나갔죠. 6월의 정권직무부총리의 제안사건으로 침체국면을 맞게 되었는데 이러한 객관적 상황보다는 이것이 우리가 너무 주눅이 든 것이 분해되었기 때문이라 봅니다. 어려운 시

기일수록 학우들과, 민중들과 함께 하려는 관점들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주체의 혼돈'으로 호저부지하게 6월을 보냈습니다. 8월 역시 열심히 싸웠지만 청년학생의 자주적인 통일투쟁으로 격화되어 민중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문제가 노정됐습니다. 이중 가장 난관에 봉착했던 것이 소련 사태였어요. 러시아 혁명의 위대성을 얘기하오던 우리에게 어느날 갑자기 무너져 버린 소련에 많은 당혹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망했다고 해서 남한의

남의 자리를 마련해야만 통일, 비핵, 군축문제가 92-93 이후에도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겠지요. △김창수는 "92-93년엔 남한-미국의 결탁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남북한 문제에서는 내적인 변수 즉 남한과 북한의 역량을 고려해야 하죠. 지금은 소련이 변수가 됩니다. 내부의 역량은 경제적으로 균형이 잡혔다고 생각하지만 외적인 조건은 엄청나죠. 소련이 긴제할때는 핵시설 선제공격이 불가능했으니 지금은 모험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민중운동전열도 그런 가정을 배제하지 않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92-93년이 전연적인 정권교체라 볼 수만은 없지만 중요한 시기인것만은 사실입니다. 87년만 해도 기대만 높았지만 6-29정도의 성과를 봐도 못 거뒀었던 점을 빼고도 교훈으로 삼아 정권교체의 질적변화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무모하지 않게 목표를 세워야 하겠습니

주체혁신으로 대중과의 결합강화하여 학생운동의 한계 극복해야

△장시기는 "우리의 오류가 이면면 선거국면에서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92-93년의 권력체계를 말하면서 이미 90년도부터 계속 민중운동의 재편을 말했죠. 지금은 야권이 통합되었지만 5-6월투쟁기간만 해도 분열일로였습니다. 92년후반에서 정세가 수습이나 패물사건등 민족적 분노



김 창 수

였죠. 92-93년도는 대적변기기는 하지만 남한의 권력의 성질 자체가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단계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의 자유등을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겠습니다. 역량의 발전에 맞게 요구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울러 87년도이후 미국이 한국에 대한 간섭을 심화했던

것을 상기할때 국내적 요소만을 생각한다면 일사불란하게 버려졌던 것을 가장 크게 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한사람의 이종구 국방장관의 93년도에 북한이 남승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부들이 공안탄압의 필연적 산물이라며 자기 이론에 제멋대로 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투쟁을 벌이지 못하고 예전했던 식으로 이종구는 사상적 오류가 심했거든요. 또한 조직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 많은 학우들의 자주적진출 요구가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우들과 함께 단명한 문제를 토론하지 못하고 또한 담내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술적 측면에서도 민중들의 민주적 요구들을 정서화, 강령화시켜내고 마·노와의 대립전선을 갖는데 실패하여 거국총파업과 수렴, 내각총사퇴 주장 등으로 그들의 정치적 지향을 높여가지 못하고 상층에서 선연적인 승모진을 외치다가 민중들과 떨어져 나갔죠. 6월의 정권직무부총리의 제안사건으로 침체국면을 맞게 되었는데 이러한 객관적 상황보다는 이것이 우리가 너무 주눅이 든 것이 분해되었기 때문이라 봅니다. 어려운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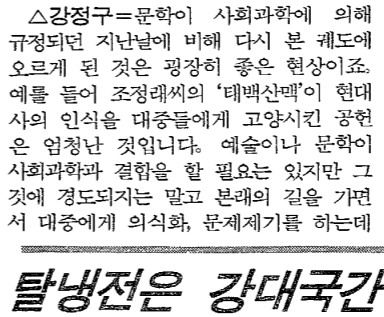
것을 상기할때 국내적 요소만을 생각한다면 일사불란하게 버려졌던 것을 가장 크게 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한사람의 이종구 국방장관의 93년도에 북한이 남승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부들이 공안탄압의 필연적 산물이라며 자기 이론에 제멋대로 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투쟁을 벌이지 못하고 예전했던 식으로 이종구는 사상적 오류가 심했거든요. 또한 조직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 많은 학우들의 자주적진출 요구가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우들과 함께 단명한 문제를 토론하지 못하고 또한 담내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남의 자리를 마련해야만 통일, 비핵, 군축문제가 92-93 이후에도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겠지요. △김창수는 "92-93년엔 남한-미국의 결탁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남북한 문제에서는 내적인 변수 즉 남한과 북한의 역량을 고려해야 하죠. 지금은 소련이 변수가 됩니다. 내부의 역량은 경제적으로 균형이 잡혔다고 생각하지만 외적인 조건은 엄청나죠. 소련이 긴제할때는 핵시설 선제공격이 불가능했으니 지금은 모험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민중운동전열도 그런 가정을 배제하지 않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92-93년이 전연적인 정권교체라 볼 수만은 없지만 중요한 시기인것만은 사실입니다. 87년만 해도 기대만 높았지만 6-29정도의 성과를 봐도 못 거뒀었던 점을 빼고도 교훈으로 삼아 정권교체의 질적변화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무모하지 않게 목표를 세워야 하겠습니

△장시기는 "우리의 오류가 이면면 선거국면에서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92-93년의 권력체계를 말하면서 이미 90년도부터 계속 민중운동의 재편을 말했죠. 지금은 야권이 통합되었지만 5-6월투쟁기간만 해도 분열일로였습니다. 92년후반에서 정세가 수습이나 패물사건등 민족적 분노

탈냉전은 강대국간 힘의 대결의 일시적 와해일뿐 진정한 평화는 아니다

△장시기는 "우리의 오류가 이면면 선거국면에서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92-93년의 권력체계를 말하면서 이미 90년도부터 계속 민중운동의 재편을 말했죠. 지금은 야권이 통합되었지만 5-6월투쟁기간만 해도 분열일로였습니다. 92년후반에서 정세가 수습이나 패물사건등 민족적 분노



김 창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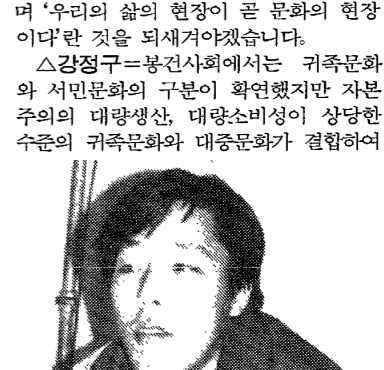
였죠. 92-93년도는 대적변기기는 하지만 남한의 권력의 성질 자체가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단계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의 자유등을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겠습니다. 역량의 발전에 맞게 요구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울러 87년도이후 미국이 한국에 대한 간섭을 심화했던

것을 상기할때 국내적 요소만을 생각한다면 일사불란하게 버려졌던 것을 가장 크게 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한사람의 이종구 국방장관의 93년도에 북한이 남승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부들이 공안탄압의 필연적 산물이라며 자기 이론에 제멋대로 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투쟁을 벌이지 못하고 예전했던 식으로 이종구는 사상적 오류가 심했거든요. 또한 조직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 많은 학우들의 자주적진출 요구가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우들과 함께 단명한 문제를 토론하지 못하고 또한 담내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술적 측면에서도 민중들의 민주적 요구들을 정서화, 강령화시켜내고 마·노와의 대립전선을 갖는데 실패하여 거국총파업과 수렴, 내각총사퇴 주장 등으로 그들의 정치적 지향을 높여가지 못하고 상층에서 선연적인 승모진을 외치다가 민중들과 떨어져 나갔죠. 6월의 정권직무부총리의 제안사건으로 침체국면을 맞게 되었는데 이러한 객관적 상황보다는 이것이 우리가 너무 주눅이 든 것이 분해되었기 때문이라 봅니다. 어려운 시

것을 상기할때 국내적 요소만을 생각한다면 일사불란하게 버려졌던 것을 가장 크게 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한사람의 이종구 국방장관의 93년도에 북한이 남승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부들이 공안탄압의 필연적 산물이라며 자기 이론에 제멋대로 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투쟁을 벌이지 못하고 예전했던 식으로 이종구는 사상적 오류가 심했거든요. 또한 조직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 많은 학우들의 자주적진출 요구가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우들과 함께 단명한 문제를 토론하지 못하고 또한 담내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많은 특이 서문연의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우리학교 민중미학연구소에서 불인 TV비영도 아주 좋은 시도라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개량화는 어느곳이나 있었으며 문화에 대한 정서적 차이가 없다면 실제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는 존속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문화만이 대중주의적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식적으로 깨닫지 않는 이상 민중들의 투쟁의지를 잠식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폭로하고 집단적, 문화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우리의 삶의 현상이 곧 문화의 현상'이다란 것을 되새겨야겠습니다. △김창수는 "북한사회에서는 귀족문화와 서민문화의 구분이 확실히 구분되어 자본주의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상당한 수준의 귀족문화와 대중문화가 결합하여



김 창 수

계급적취, 수탈이 엄청나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재, 문화적 형태에서는 고급문화를 노동자들이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진자본주의의 국가는 몰락트레드 마련해 있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의 포용이 가능하지만 남한은 선배만 노동자뿐이죠. 그러나 이것을 실제 이상으로 확대하여 노동자 계급 전진이 출몰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의식이 확산되다보니 노동자 계급의 연대성, 의식성, 혁명성을 무디게 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우리와는 다른 때만 하더라도 순 외국의 시인만 선호했고 우리 민족적인 것이 없었어. 사대주의의 비토학적 일색이었던 것이요. 그러나 요즘은 농약등 민족적인 것을 많이 개발하는 민족주의적 지향이 높아져서 거게 역사를 보면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김창수는 "사대주의의 비토학적 일색이었던 것이요. 그러나 요즘은 농약등 민족적인 것을 많이 개발하는 민족주의적 지향이 높아져서 거게 역사를 보면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김창수는 "우리와는 다른 때만 하더라도 순 외국의 시인만 선호했고 우리 민족적인 것이 없었어. 사대주의의 비토학적 일색이었던 것이요. 그러나 요즘은 농약등 민족적인 것을 많이 개발하는 민족주의적 지향이 높아져서 거게 역사를 보면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김창수는 "우리와는 다른 때만 하더라도 순 외국의 시인만 선호했고 우리 민족적인 것이 없었어. 사대주의의 비토학적 일색이었던 것이요. 그러나 요즘은 농약등 민족적인 것을 많이 개발하는 민족주의적 지향이 높아져서 거게 역사를 보면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김창수는 "우리와는 다른 때만 하더라도 순 외국의 시인만 선호했고 우리 민족적인 것이 없었어. 사대주의의 비토학적 일색이었던 것이요. 그러나 요즘은 농약등 민족적인 것을 많이 개발하는 민족주의적 지향이 높아져서 거게 역사를 보면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김창수는 "우리와는 다른 때만 하더라도 순 외국의 시인만 선호했고 우리 민족적인 것이 없었어. 사대주의의 비토학적 일색이었던 것이요. 그러나 요즘은 농약등 민족적인 것을 많이 개발하는 민족주의적 지향이 높아져서 거게 역사를 보면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김창수는 "우리와는 다른 때만 하더라도 순 외국의 시인만 선호했고 우리 민족적인 것이 없었어. 사대주의의 비토학적 일색이었던 것이요. 그러나 요즘은 농약등 민족적인 것을 많이 개발하는 민족주의적 지향이 높아져서 거게 역사를 보면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기록·정리=김명란 기자)

지상유세

민족동약의 기개를 보듬은 총학으로

1만 동약인이 백백뛰는 자주 동약에서 민주정부 수립의 희망봉 부어졌고 통일조국의 일꾼으로 우뚝서라.

일심단결의 대오 해방동약이여! 독자성과 연합의 통일적 실현으로 민주중도 민주대연합 건설하자!

자주·민주·통일을 향한 대장정에서, 그 기상과 용기를 드높이고 있는 1만동약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92~93년의 승리를 위해 내년 총학생회의 힘찬노력을 준비하는 기호1년 조한근, 흥정의 힘찬게 인사드립니다.

의 사명감으로 우뚝세워 나갈 것입니다.

이미 역사적 효력을 상실한 민주정당은이나 아무런 구체적 대안없는 공허한 '민주연합'은 의는 1만 학우의 단결을 해치는 공허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2)92년 학우들과 함께 진군할 새세대 학생회

을 위해 자주적 학생회는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생회가 우리들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고 있지는 못합니다. 정치투쟁만을 고집하며 학생회를 정치전선, 선

르지 않은 간부, 학우들과 함께 강의실에서도 성실한 간부, 이런 간부들만이 민주정부 수립투쟁의 과정에서 혼자 수발하고 나가지 않고 학우들과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세대 학생회의 건설만이 민주정부 수립투쟁의 승리를 약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3)학우들과 함께 할 학생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왜 우리 학교는 재단 전입금이 없어요? 재단이 무능하고 부패한 학교가 발

이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받아들이는 현실, 재단의 자산인 학교 건물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건립하는 현실, 제3캠퍼스 등의 구상도 가지면서 학교발전의 마스터플랜은 제시하지 못하는 현실,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하나씩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월20일경에 있는 재단 이사장 선거에 힘있게 결집해야 합니다.

현재는 두사람 정도로 차기 이사장이 될때

현실과 타협하기보다는 청년기상으로 일어서라! 마침내 재단내 민주정치적 세시대로 질주하라! 행동하는 총학생회, 청년 동약이여!

추운 감옥에서 아직도 민주를 염원하며 투쟁하고 있는 저희동지들을 생각합니다.

안정화시키니까? 반동과 개량 권력 투쟁의 회망한 내일을 만들고 오고자 제24대 총학생회·제2대 총학생회장에 임부호한 기호2

다. "과격할 운동권과는 이제 손을 끊어야 한다." "비폭력, 비운동권, 비비밀을 정치노선으로 삼았다." 이대언이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 노태우가 남몰래 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노태우정권과 투쟁하지 않는 정당, 오히려 썩은 정권과 밀월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정당, 미국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정당, 결국 보수대연합에 편입되기 위해 민주운동과 손을 끊겠다고 자랑하는 정당, 바로 그 정당과 연합한다는 것이 민주연합입니다. 이런 야당과 손을 잡으면

민주부 수립을 위한 민주정당 단일전선'건설에 착수합니다. 이를 통하여 총선, 대선때 민주정당 독자투표 출마전략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진보적 사회과학자, 교수들의 참여 하에 국내정치, 국제정치, 경제, 통일, 교육, 여성, 인권, 문화, 환경 등등의 전문위원회 설치하여 국가정책의 각 분야에 대한 정책적 대안들을 연구, 개발하여 정부부처에 힘있게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민주정당은 더이상 비비밀적이 아닌 당당한 수권세력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3대 총학생회의 덕이었습니다. 동국 한마당이었습니다.

정, 부학생회장으로 임부호한 기호2년 이광집, 윤오순은 23대 자주적 총학생회가 두가지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제 23대 자주적 총학생회의 가장 큰 맹점은 지도내용의 부재, 학우들의 지도적 구심으로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풀리지 못하는 것이 간부의 불실성과 학우들의 자주성 결여로 치부되어서는 안됩니다. 지도부의 내용의 부실함이 은폐되어서는 안됩니다.

둘째, 사업의 내용으로 민주성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도의 내용이 비민주적으로 채택되고, 집행내용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1)민주정부의 새날은 오직 1만학우의 단결된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92년 우리의 목표는 민주정부의 수립입니다. 그런데 "민주정부는 보수야당과 함께 만드는 정부"에 보수야당의 입지만을 강화시킨다"라는 왜곡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87년 6월 학생의 성과는 대동명 선거를 통하여 보수야당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제반 계급·계층의 자주적 진출의 가속화와 조직적 성과(전대협, 전총, 전노협, 전민련 등의 건설)로 축적되었을 뿐이며 앞으로 전개될 92~93년 학생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를 통한 보수야당의 일시적 독재에 연연하여 민주투쟁, 조직적 투쟁을 무시하는 것은 민중의 입정일 수 없습니다. 87년 이후의 과정에서 우

우의 공간으로부터 바라보거나, "학우를 따라오십시오"라는 식의 관점이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새세대 학생회는 간부가 모범을 보이면서 학우들과 생활, 학습, 투쟁을 함께하는 장이어야 합니다.

전할 수 있나?" 그렇습니다. 재단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학교의 발전은 이불속에 있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단투쟁은 우리의 최대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기간 재단투쟁이 본 궤도에 있지 못한 이유는 첫째, 재단

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사람 모두 우리 학교의 발전을 생각하기 보다는 지위에 급급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불교계의 유일한 종교대항이기에 조계종 사원 3위에 이르는 이사장 지위만을 노리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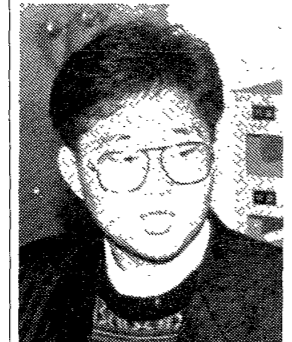
반민자당 전선이 강화된다고 믿는 것, 이것이 민주연합의 주장입니다. 과연 그렇게 하면 노태우정권이 풀장나겠습니까? 세계, 92~93년의 목표가 민주정부수립이기 때문에 민주연합전선이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목표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92~93년을 헤쳐나갈 동약의 지도적 구심인 총학생회 건설의 상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선 23대 총학생회에 대한 비판적 검토속에서 대안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실천, 행동하는 총학생회, 제 24대 총학생회는 어떻게 사업을 펼쳐 나갈까요? 그것은 첫째, 민주적 학생회 운영원리로 지도내용을 위한 '민주집중제'의 구현입니다. 학생회의 민주주의는 학우들의 의견 수렴과 사업의 공개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도내용의 메시지에 편입될 수 있도록 각 계층별 전문성 강화를 필요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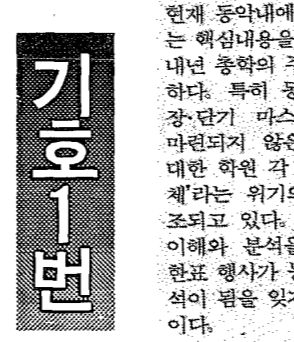
둘째, 사업의 공개성과 민주성은 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공개를 통해 사업의 내용은 민주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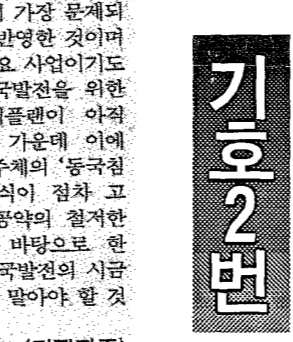
(정)조한근



(부)흥정의



(정)이광집



(부)윤오순

동약의 공간으로부터 바라보거나, "학우를 따라오십시오"라는 식의 관점이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새세대 학생회는 간부가 모범을 보이면서 학우들과 생활, 학습, 투쟁을 함께하는 장이어야 합니다.

전할 수 있나?" 그렇습니다. 재단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학교의 발전은 이불속에 있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단투쟁은 우리의 최대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기간 재단투쟁이 본 궤도에 있지 못한 이유는 첫째, 재단

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사람 모두 우리 학교의 발전을 생각하기 보다는 지위에 급급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불교계의 유일한 종교대항이기에 조계종 사원 3위에 이르는 이사장 지위만을 노리는 것입니다.

반민자당 전선이 강화된다고 믿는 것, 이것이 민주연합의 주장입니다. 과연 그렇게 하면 노태우정권이 풀장나겠습니까? 세계, 92~93년의 목표가 민주정부수립이기 때문에 민주연합전선이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목표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92~93년을 헤쳐나갈 동약의 지도적 구심인 총학생회 건설의 상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선 23대 총학생회에 대한 비판적 검토속에서 대안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실천, 행동하는 총학생회, 제 24대 총학생회는 어떻게 사업을 펼쳐 나갈까요? 그것은 첫째, 민주적 학생회 운영원리로 지도내용을 위한 '민주집중제'의 구현입니다. 학생회의 민주주의는 학우들의 의견 수렴과 사업의 공개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도내용의 메시지에 편입될 수 있도록 각 계층별 전문성 강화를 필요로 합니다.

둘째, 사업의 공개성과 민주성은 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공개를 통해 사업의 내용은 민주적

그렇다면 새로운 실천, 행동하는 총학생회, 제 24대 총학생회는 어떻게 사업을 펼쳐 나갈까요? 그것은 첫째, 민주적 학생회 운영원리로 지도내용을 위한 '민주집중제'의 구현입니다. 학생회의 민주주의는 학우들의 의견 수렴과 사업의 공개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도내용의 메시지에 편입될 수 있도록 각 계층별 전문성 강화를 필요로 합니다.

둘째, 사업의 공개성과 민주성은 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공개를 통해 사업의 내용은 민주적

그렇다면 새로운 실천, 행동하는 총학생회, 제 24대 총학생회는 어떻게 사업을 펼쳐 나갈까요? 그것은 첫째, 민주적 학생회 운영원리로 지도내용을 위한 '민주집중제'의 구현입니다. 학생회의 민주주의는 학우들의 의견 수렴과 사업의 공개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도내용의 메시지에 편입될 수 있도록 각 계층별 전문성 강화를 필요로 합니다.

둘째, 사업의 공개성과 민주성은 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공개를 통해 사업의 내용은 민주적

‘전국연합’중심으로 민주정부 수립 전입금 확충등 재단혁신투쟁에 주력

리는 보수야당이 아무런 조직적 기반없이 사멸해 가는 정치 집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오히려 화려하지는 않지만 묵묵히 일하는 우리 4천만 민중의 의지와 힘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선거를 통한 보수야당의 일시적 독재에 연연하여 민주투쟁, 조직적 투쟁을 무시하는 것은 민중의 입정일 수 없습니다. 87년 이후의 과정에서 우

4년이라는 세월을 우리는 대학에서 보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4년! 개인주의, 향락주의를 타파하는 청년학생의 인생관을 정립하는 곳, 재국주의의 근화반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민족의 현실을 바로 보고 그 해결의 신념과 용기를 배워나가는 장! 우리는 학생회를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자성과 용기의 산실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전공에 대한 공부의 몰입이 거니와 각종 소비의 속에서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진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학생회! 이것이 새세대 학생회의 상입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맨먼저 간부가 바뀌어야 합니다. 생활·학습·투쟁 모두에서 삶의 모범이 사람이 진정한 간부입니다. 나태하거나 게으

의 실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재단이라는 있는데 재단은 어떤 모습인가? 조계종 중단인가? 아니면 불교계 전체인가? 기업을? 그렇다고 개인도 아닌 불명확한 재단의 실체때문입니다.

둘째, 재단이 정권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법은 재단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만들어 놓았고, 재단이사지만 보더라도 민자당 고문, 관선이사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간 재단투쟁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재단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민족동약의 자긍심은 영원히 낙담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 이러한 사명감으로 재단투쟁은 사활을 걸고 수행해야 합니다. 총학생회 되기 위하여 이들에게 기적만원의 돈을 뿌리고

재단 이사장 선거에 우리들의 요구사항인 재단전입금의 확보, 학교 발전기금의 마련을 내걸고 나서야 합니다.

재단이 자기역할을 못할 때 우리가 앞장서 재단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학우 여러분! 지금은 비록 총학생회 선거시기가지만 다시한번 출발합시다.

재단을 혁신시켜 민족동약의 자긍심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동국을 살립니다. 민족동약의 건설열풍이 됩시다.

학우 여러분! 저희 기호1년 조한근·흥정의는 우리들의 학생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들의 새세대·새학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겠습니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의 부지런함으로 언제나 학우들 발걸음에 맞춰 걷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단일정당 건설로 민주권력 쟁취 학생회 사업공개로 민주집중제 구현

이 많은 객관적 현실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 기초한 것입니다. 최근 재단, 리서치등의 여론조사에서 통합야당이 출병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당 중 그 어느정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의 패색이 상향되어 가는 사실이라든지, 20년간 평민당의 대표 김대중씨에 대한 지지가 절대적이었던 전반기에서조차 비판의 소리가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최근의 동맹의 실패 투쟁,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보수야당에 대한 청년이나 요구투쟁보다는 스스로의 단결된 힘에 기초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정확히 직시해야 합니다.

둘째, 민주연합은 반민자당 연합전선의 강력한 구축을 야당과의 연합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연합의 장당에서 김대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92~93년이란 2000년이란 항상 민주정권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민중들이 이야기해 온 진리입니다. 우리의 주체적 힘이 부족하다고해도 민주정권에 대한 철저한 염원은 영원히 수정될 수 없습니다. 이미 건너서는 안될 강을 넘어야만 보수야당과 연합으로 민주정부를 세우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민중들이 이루어 할 것발은 무엇입니까?

지금 민주정당의 독자적지를 명확히 워라야 할 때입니다. 이미 파산된 보수야당과의 연합투쟁은 아니나 독자적 민주투쟁을, 보수야당과의 연합투쟁이 아니라 민주정당의 독립적 투쟁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민주정당 단일정당 건설과 민주정권 민

23대 총학생회는 유독 TV와 신문에 잘나와 언론플레이의 명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TV, 신문에 동국대가 나온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신문에 실린 민중운동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강경대 열사로부터 김기정 열사의 죽음까지 우리 학우들이 거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갔을때, 외국어에서 정원식 총리사건이 정권에 의해 떠돌아다니는 동안, 동국대 학생회는 불상앞에서 '종강' '죽자'를 외치고 있었습니까? '학원'은 모든 폭력과 싸움을 그리고 지고한 전진의 상아탑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원연구에 전념하고 교수, 학생간의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제도인론이 유포한 이 말은 외대학우들의 건설적 재촉과, 나아가 그 대항우를 더욱 페로아로 몰아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계, 학문·사상의 요람을 건설하기 위해 과학·과학위원을 자기계급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교과위사업의 위상을 되찾고 안정적인 역량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이와 함께 학회, 교과위의 연계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네째, 비대항적 직영수입의 관리문제와 단체복지 사업과의 결합문제등을 놓으며 학우들의 많은 불신을 받았던 학생복지위원회를 전면 혁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당국2인, 교수2인, 학생2인으로 동국대 지엄의회를 구성하여 복지사업에 대한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마련, 학교와의 협의회에 직접 사업을 전개하고 각 단체 단위 복지부를 신설하여 철저한 민주성과 공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숲은 이제 마음속의 고향입니다

그들은 예리한 칼날이 번뜩이는 연정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숲속의 친구들이 노래소리를 멈추었습니다. 부들부들 사사나무 땀이 이쪽 저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그루씩 한그루씩 나무들은 베어지고 숲은 조그맣게 조그맣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나무들이 땅에서 뿌리뿔고, 학살 당하고, 끝장나고 말았으니, 나무들과 아름다운 친구들은 사람들을 원망할 따름입니다. 이제, 사림들로부터 훼손된 숲은 사람들 스스로 다시 살려야 합니다. 사림들 모두의 꿈과 희망은 우리들 사는 세상으로 낙원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숲속의 생명력과 활력이 존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조그마한 목소리들과 지극히 미미한 속삭임과, 지극히 경쾌한 재잘거림과, 지극히 오편한 속삭임이 숲속에 가득 있습니다. 태양이 높게 떠오르면 햇살의 줄기들과 덩어리들이 나타나서 점점 더 커지고 나무 꼭대기에서 깨어나는 아침의 산들바람과 더불어 조그맣게 부르르 떨기도 합니다. 숲속의 따스한 기운은 축축한 숲일과, 이끼와, 증발하는 이슬 따위의 새로운 향기들을 땅으로부터 끌어모아 숲속 특유의 분위기로 우리를 매혹합니다. 숲과 오편한 분위기와 숨진 냄새들... 그리고 그 앞에는 산과 구름과 하늘의 풍경들- 숲속에 들어서면 살아있는 전람회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숲은 이제 마음속의 고향일뿐입니다. 어느날 숲속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재구에 큰기, 부러진 나무를 가지, 나뭇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속의 고향입니다. 숲속의 생명력과 활력이 존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조그마한 목소리들과 지극히 미미한 속삭임과, 지극히 경쾌한 재잘거림과, 지극히 오편한 속삭임이 숲속에 가득 있습니다. 태양이 높게 떠오르면 햇살의 줄기들과 덩어리들이 나타나서 점점 더 커지고 나무 꼭대기에서 깨어나는 아침의 산들바람과 더불어 조그맣게 부르르 떨기도 합니다. 숲속의 따스한 기운은 축축한 숲일과, 이끼와, 증발하는 이슬 따위의 새로운 향기들을 땅으로부터 끌어모아 숲속 특유의 분위기로 우리를 매혹합니다. 숲과 오편한 분위기와 숨진 냄새들... 그리고 그 앞에는 산과 구름과 하늘의 풍경들- 숲속에 들어서면 살아있는 전람회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숲은 이제 마음속의 고향일뿐입니다. 어느날 숲속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재구에 큰기, 부러진 나무를 가지, 나뭇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속의 고향입니다. 숲속의 생명력과 활력이 존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조그마한 목소리들과 지극히 미미한 속삭임과, 지극히 경쾌한 재잘거림과, 지극히 오편한 속삭임이 숲속에 가득 있습니다. 태양이 높게 떠오르면 햇살의 줄기들과 덩어리들이 나타나서 점점 더 커지고 나무 꼭대기에서 깨어나는 아침의 산들바람과 더불어 조그맣게 부르르 떨기도 합니다. 숲속의 따스한 기운은 축축한 숲일과, 이끼와, 증발하는 이슬 따위의 새로운 향기들을 땅으로부터 끌어모아 숲속 특유의 분위기로 우리를 매혹합니다. 숲과 오편한 분위기와 숨진 냄새들... 그리고 그 앞에는 산과 구름과 하늘의 풍경들- 숲속에 들어서면 살아있는 전람회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숲은 이제 마음속의 고향일뿐입니다. 어느날 숲속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재구에 큰기, 부러진 나무를 가지, 나뭇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속의 고향입니다. 숲속의 생명력과 활력이 존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조그마한 목소리들과 지극히 미미한 속삭임과, 지극히 경쾌한 재잘거림과, 지극히 오편한 속삭임이 숲속에 가득 있습니다. 태양이 높게 떠오르면 햇살의 줄기들과 덩어리들이 나타나서 점점 더 커지고 나무 꼭대기에서 깨어나는 아침의 산들바람과 더불어 조그맣게 부르르 떨기도 합니다. 숲속의 따스한 기운은 축축한 숲일과, 이끼와, 증발하는 이슬 따위의 새로운 향기들을 땅으로부터 끌어모아 숲속 특유의 분위기로 우리를 매혹합니다. 숲과 오편한 분위기와 숨진 냄새들... 그리고 그 앞에는 산과 구름과 하늘의 풍경들- 숲속에 들어서면 살아있는 전람회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숲은 이제 마음속의 고향일뿐입니다. 어느날 숲속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재구에 큰기, 부러진 나무를 가지, 나뭇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속의 고향입니다. 숲속의 생명력과 활력이 존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조그마한 목소리들과 지극히 미미한 속삭임과, 지극히 경쾌한 재잘거림과, 지극히 오편한 속삭임이 숲속에 가득 있습니다. 태양이 높게 떠오르면 햇살의 줄기들과 덩어리들이 나타나서 점점 더 커지고 나무 꼭대기에서 깨어나는 아침의 산들바람과 더불어 조그맣게 부르르 떨기도 합니다. 숲속의 따스한 기운은 축축한 숲일과, 이끼와, 증발하는 이슬 따위의 새로운 향기들을 땅으로부터 끌어모아 숲속 특유의 분위기로 우리를 매혹합니다. 숲과 오편한 분위기와 숨진 냄새들... 그리고 그 앞에는 산과 구름과 하늘의 풍경들- 숲속에 들어서면 살아있는 전람회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숲은 이제 마음속의 고향일뿐입니다. 어느날 숲속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재구에 큰기, 부러진 나무를 가지, 나뭇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속의 고향입니다. 숲속의 생명력과 활력이 존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조그마한 목소리들과 지극히 미미한 속삭임과, 지극히 경쾌한 재잘거림과, 지극히 오편한 속삭임이 숲속에 가득 있습니다. 태양이 높게 떠오르면 햇살의 줄기들과 덩어리들이 나타나서 점점 더 커지고 나무 꼭대기에서 깨어나는 아침의 산들바람과 더불어 조그맣게 부르르 떨기도 합니다. 숲속의 따스한 기운은 축축한 숲일과, 이끼와, 증발하는 이슬 따위의 새로운 향기들을 땅으로부터 끌어모아 숲속 특유의 분위기로 우리를 매혹합니다. 숲과 오편한 분위기와 숨진 냄새들... 그리고 그 앞에는 산과 구름과 하늘의 풍경들- 숲속에 들어서면 살아있는 전람회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숲은 이제 마음속의 고향일뿐입니다. 어느날 숲속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재구에 큰기, 부러진 나무를 가지, 나뭇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속의 고향입니다. 숲속의 생명력과 활력이 존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조그마한 목소리들과 지극히 미미한 속삭임과, 지극히 경쾌한 재잘거림과, 지극히 오편한 속삭임이 숲속에 가득 있습니다. 태양이 높게 떠오르면 햇살의 줄기들과 덩어리들이 나타나서 점점 더 커지고 나무 꼭대기에서 깨어나는 아침의 산들바람과 더불어 조그맣게 부르르 떨기도 합니다. 숲속의 따스한 기운은 축축한 숲일과, 이끼와, 증발하는 이슬 따위의 새로운 향기들을 땅으로부터 끌어모아 숲속 특유의 분위기로 우리를 매혹합니다. 숲과 오편한 분위기와 숨진 냄새들... 그리고 그 앞에는 산과 구름과 하늘의 풍경들- 숲속에 들어서면 살아있는 전람회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숲은 이제 마음속의 고향일뿐입니다. 어느날 숲속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재구에 큰기, 부러진 나무를 가지, 나뭇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속의 고향입니다. 숲속의 생명력과 활력이 존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조그마한 목소리들과 지극히 미미한 속삭임과, 지극히 경쾌한 재잘거림과, 지극히 오편한 속삭임이 숲속에 가득 있습니다. 태양이 높게 떠오르면 햇살의 줄기들과 덩어리들이 나타나서 점점 더 커지고 나무 꼭대기에서 깨어나는 아침의 산들바람과 더불어 조그맣게 부르르 떨기도 합니다. 숲속의 따스한 기운은 축축한 숲일과, 이끼와, 증발하는 이슬 따위의 새로운 향기들을 땅으로부터 끌어모아 숲속 특유의 분위기로 우리를 매혹합니다. 숲과 오편한 분위기와 숨진 냄새들... 그리고 그 앞에는 산과 구름과 하늘의 풍경들- 숲속에 들어서면 살아있는 전람회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숲은 이제 마음속의 고향일뿐입니다. 어느날 숲속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재구에 큰기, 부러진 나무를 가지, 나뭇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속의 고향입니다. 숲속의 생명력과 활력이 존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조그마한 목소리들과 지극히 미미한 속삭임과, 지극히 경쾌한 재잘거림과, 지극히 오편한 속삭임이 숲속에 가득 있습니다. 태양이 높게 떠오르면 햇살의 줄기들과 덩어리들이 나타나서 점점 더 커지고 나무 꼭대기에서 깨어나는 아침의 산들바람과 더불어 조그맣게 부르르 떨기도 합니다. 숲속의 따스한 기운은 축축한 숲일과, 이끼와, 증발하는 이슬 따위의 새로운 향기들을 땅으로부터 끌어모아 숲속 특유의 분위기로 우리를 매혹합니다. 숲과 오편한 분위기와 숨진 냄새들... 그리고 그 앞에는 산과 구름과 하늘의 풍경들- 숲속에 들어서면 살아있는 전람회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숲은 이제 마음속의 고향일뿐입니다. 어느날 숲속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재구에 큰기, 부러진 나무를 가지, 나뭇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속의 고향입니다. 숲속의 생명력과 활력이 존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조그마한 목소리들과 지극히 미미한 속삭임과, 지극히 경쾌한 재잘거림과, 지극히 오편한 속삭임이 숲속에 가득 있습니다. 태양이 높게 떠오르면 햇살의 줄기들과 덩어리들이 나타나서 점점 더 커지고 나무 꼭대기에서 깨어나는 아침의 산들바람과 더불어 조그맣게 부르르 떨기도 합니다. 숲속의 따스한 기운은 축축한 숲일과, 이끼와, 증발하는 이슬 따위의 새로운 향기들을 땅으로부터 끌어모아 숲속 특유의 분위기로 우리를 매혹합니다. 숲과 오편한 분위기와 숨진 냄새들... 그리고 그 앞에는 산과 구름과 하늘의 풍경들- 숲속에 들어서면 살아있는 전람회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숲은 이제 마음속의 고향일뿐입니다. 어느날 숲속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재구에 큰기, 부러진 나무를 가지, 나뭇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속의 고향입니다. 숲속의 생명력과 활력이 존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조그마한 목소리들과 지극히 미미한 속삭임과, 지극히 경쾌한 재잘거림과, 지극히 오편한 속삭임이 숲속에 가득 있습니다. 태양이 높게 떠오르면 햇살의 줄기들과 덩어리들이 나타나서 점점 더 커지고 나무 꼭대기에서 깨어나는 아침의 산들바람과 더불어 조그맣게 부르르 떨기도 합니다. 숲속의 따스한 기운은 축축한 숲일과, 이끼와, 증발하는 이슬 따위의 새로운 향기들을 땅으로부터 끌어모아 숲속 특유의 분위기로 우리를 매혹합니다. 숲과 오편한 분위기와 숨진 냄새들... 그리고 그 앞에는 산과 구름과 하늘의 풍경들- 숲속에 들어서면 살아있는 전람회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숲은 이제 마음속의 고향일뿐입니다. 어느날 숲속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재구에 큰기, 부러진 나무를 가지, 나뭇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속의 고향입니다. 숲속의 생명력과 활력이 존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조그마한 목소리들과 지극히 미미한 속삭임과, 지극히 경쾌한 재잘거림과, 지극히 오편한 속삭임이 숲속에 가득 있습니다. 태양이 높게 떠오르면 햇살의 줄기들과 덩어리들이 나타나서 점점 더 커지고 나무 꼭대기에서 깨어나는 아침의 산들바람과 더불어 조그맣게 부르르 떨기도 합니다. 숲속의 따스한 기운은 축축한 숲일과, 이끼와, 증발하는 이슬 따위의 새로운 향기들을 땅으로부터 끌어모아 숲속 특유의 분위기로 우리를 매혹합니다. 숲과 오편한 분위기와 숨진 냄새들... 그리고 그 앞에는 산과 구름과 하늘의 풍경들- 숲속에 들어서면 살아있는 전람회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숲은 이제 마음속의 고향일뿐입니다. 어느날 숲속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재구에 큰기, 부러진 나무를 가지, 나뭇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속의 고향입니다. 숲속의 생명력과 활력이 존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조그마한 목소리들과 지극히 미미한 속삭임과, 지극히 경쾌한 재잘거림과, 지극히 오편한 속삭임이 숲속에 가득 있습니다. 태양이 높게 떠오르면 햇살의 줄기들과 덩어리들이 나타나서 점점 더 커지고 나무 꼭대기에서 깨어나는 아침의 산들바람과 더불어 조그맣게 부르르 떨기도 합니다. 숲속의 따스한 기운은 축축한 숲일과, 이끼와, 증발하는 이슬 따위의 새로운 향기들을 땅으로부터 끌어모아 숲속 특유의 분위기로 우리를 매혹합니다. 숲과 오편한 분위기와 숨진 냄새들... 그리고 그 앞에는 산과 구름과 하늘의 풍경들- 숲속에 들어서면 살아있는 전람회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숲은 이제 마음속의 고향일뿐입니다. 어느날 숲속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재구에 큰기, 부러진 나무를 가지, 나뭇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속의 고향입니다. 숲속의 생명력과 활력이 존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조그마한 목소리들과 지극히 미미한 속삭임과, 지극히 경쾌한 재잘거림과, 지극히 오편한 속삭임이 숲속에 가득 있습니다. 태양이 높게 떠오르면 햇살의 줄기들과 덩어리들이 나타나서 점점 더 커지고 나무 꼭대기에서 깨어나는 아침의 산들바람과 더불어 조그맣게 부르르 떨기도 합니다. 숲속의 따스한 기운은 축축한 숲일과, 이끼와, 증발하는 이슬 따위의 새로운 향기들을 땅으로부터 끌어모아 숲속 특유의 분위기로 우리를 매혹합니다. 숲과 오편한 분위기와 숨진 냄새들... 그리고 그 앞에는 산과 구름과 하늘의 풍경들- 숲속에 들어서면 살아있는 전람회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숲은 이제 마음속의 고향일뿐입니다. 어느날 숲속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재구에 큰기, 부러진 나무를 가지, 나뭇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속의 고향입니다. 숲속의 생명력과 활력이 존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조그마한 목소리들과 지극히 미미한 속삭임과, 지극히 경쾌한 재잘거림과, 지극히 오편한 속삭임이 숲속에 가득 있습니다. 태양이 높게 떠오르면 햇살의 줄기들과 덩어리들이 나타나서 점점 더 커지고 나무 꼭대기에서 깨어나는 아침의 산들바람과 더불어 조그맣게 부르르 떨기도 합니다. 숲속의 따스한 기운은 축축한 숲일과, 이끼와, 증발하는 이슬 따위의 새로운 향기들을 땅으로부터 끌어모아 숲속 특유의 분위기로 우리를 매혹합니다. 숲과 오편한 분위기와 숨진 냄새들... 그리고 그 앞에는 산과 구름과 하늘의 풍경들- 숲속에 들어서면 살아있는 전람회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숲은 이제 마음속의 고향일뿐입니다. 어느날 숲속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재구에 큰기, 부러진 나무를 가지, 나뭇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속의 고향입니다. 숲속의 생명력과 활력이 존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조그마한 목소리들과 지극히 미미한 속삭임과, 지극히 경쾌한 재잘거림과, 지극히 오편한 속삭임이 숲속에 가득 있습니다. 태양이 높게 떠오르면 햇살의 줄기들과 덩어리들이 나타나서 점점 더 커지고 나무 꼭대기에서 깨어나는 아침의 산들바람과 더불어 조그맣게 부르르 떨기도 합니다. 숲속의 따스한 기운은 축축한 숲일과, 이끼와, 증발하는 이슬 따위의 새로운 향기들을 땅으로부터 끌어모아 숲속 특유의 분위기로 우리를 매혹합니다. 숲과 오편한 분위기와 숨진 냄새들... 그리고 그 앞에는 산과 구름과 하늘의 풍경들- 숲속에 들어서면 살아있는 전람회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숲은 이제 마음속의 고향일뿐입니다. 어느날 숲속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재구에 큰기, 부러진 나무를 가지, 나뭇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속의 고향입니다. 숲속의 생명력과 활력이 존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조그마한 목소리들과 지극히 미미한 속삭임과, 지극히 경쾌한 재잘거림과, 지극히 오편한 속삭임이 숲속에 가득 있습니다. 태양이 높게 떠오르면 햇살의 줄기들과 덩어리들이 나타나서 점점 더 커지고 나무 꼭대기에서 깨어나는 아침의 산들바람과 더불어 조그맣게 부르르 떨기도 합니다. 숲속의 따스한 기운은 축축한 숲일과, 이끼와, 증발하는 이슬 따위의 새로운 향기들을 땅으로부터 끌어모아 숲속 특유의 분위기로 우리를 매혹합니다. 숲과 오편한 분위기와 숨진 냄새들... 그리고 그 앞에는 산과 구름과 하늘의 풍경들- 숲속에 들어서면 살아있는 전람회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숲은 이제 마음속의 고향일뿐입니다. 어느날 숲속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재구에 큰기, 부러진 나무를 가지, 나뭇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속의 고향입니다. 숲속의 생명력과 활력이 존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조그마한 목소리들과 지극히 미미한 속삭임과, 지극히 경쾌한 재잘거림과, 지극히 오편한 속삭임이 숲속에 가득 있습니다. 태양이 높게 떠오르면 햇살의 줄기들과 덩어리들이 나타나서 점점 더 커지고 나무 꼭대기에서 깨어나는 아침의 산들바람과 더불어 조그맣게 부르르 떨기도 합니다. 숲속의 따스한 기운은 축축한 숲일과, 이끼와, 증발하는 이슬 따위의 새로운 향기들을 땅으로부터 끌어모아 숲속 특유의 분위기로 우리를 매혹합니다. 숲과 오편한 분위기와 숨진 냄새들... 그리고 그 앞에는 산과 구름과 하늘의 풍경들- 숲속에 들어서면 살아있는 전람회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숲은 이제 마음속의 고향일뿐입니다. 어느날 숲속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재구에 큰기, 부러진 나무를 가지, 나뭇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속의 고향입니다. 숲속의 생명력과 활력이 존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조그마한 목소리들과 지극히 미미한 속삭임과, 지극히 경쾌한 재잘거림과, 지극히 오편한 속삭임이 숲속에 가득 있습니다. 태양이 높게 떠오르면 햇살의 줄기들과 덩어리들이 나타나서 점점 더 커지고 나무 꼭대기에서 깨어나는 아침의 산들바람과 더불어 조그맣게 부르르 떨기도 합니다. 숲속의 따스한 기운은 축축한 숲일과, 이끼와, 증발하는 이슬 따위의 새로운 향기들을 땅으로부터 끌어모아 숲속 특유의 분위기로 우리를 매혹합니다. 숲과 오편한 분위기와 숨진 냄새들... 그리고 그 앞에는 산과 구름과 하늘의 풍경들- 숲속에 들어서면 살아있는 전람회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숲은 이제 마음속의 고향일뿐입니다. 어느날 숲속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재구에 큰기, 부러진 나무를 가지, 나뭇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속의 고향입니다. 숲속의 생명력과 활력이 존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조그마한 목소리들과 지극히 미미한 속삭임과, 지극히 경쾌한 재잘거림과, 지극히 오편한 속삭임이 숲속에 가득 있습니다. 태양이 높게 떠오르면 햇살의 줄기들과 덩어리들이 나타나서 점점 더 커지고 나무 꼭대기에서 깨어나는 아침의 산들바람과 더불어 조그맣게 부르르 떨기도 합니다. 숲속의 따스한 기운은 축축한 숲일과, 이끼와, 증발하는 이슬 따위의 새로운 향기들을 땅으로부터 끌어모아 숲속 특유의 분위기로 우리를 매혹합니다. 숲과 오편한 분위기와 숨진 냄새들... 그리고 그 앞에는 산과 구름과 하늘의 풍경들- 숲속에 들어서면 살아있는 전람회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숲은 이제 마음속의 고향일뿐입니다. 어느날 숲속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재구에 큰기, 부러진 나무를 가지, 나뭇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속의 고향입니다. 숲속의 생명력과 활력이 존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조그마한 목소리들과 지극히 미미한 속삭임과, 지극히 경쾌한 재잘거림과, 지극히 오편한 속삭임이 숲속에 가득 있습니다. 태양이 높게 떠오르면 햇살의 줄기들과 덩어리들이 나타나서 점점 더 커지고 나무 꼭대기에서 깨어나는 아침의 산들바람과 더불어 조그맣게 부르르 떨기도 합니다. 숲속의 따스한 기운은 축축한 숲일과, 이끼와, 증발하는 이슬 따위의 새로운 향기들을 땅으로부터 끌어모아 숲속 특유의 분위기로 우리를 매혹합니다. 숲과 오편한 분위기와 숨진 냄새들... 그리고 그 앞에는 산과 구름과 하늘의 풍경들- 숲속에 들어서면 살아있는 전람회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숲은 이제 마음속의 고향일뿐입니다. 어느날 숲속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재구에 큰기, 부러진 나무를 가지, 나뭇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속의 고향입니다. 숲속의 생명력과 활력이 존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조그마한 목소리들과 지극히 미미한 속삭임과, 지극히 경쾌한 재잘거림과, 지극히 오편한 속삭임이 숲속에 가득 있습니다. 태양이 높게 떠오르면 햇살의 줄기들과 덩어리들이 나타나서 점점 더 커지고 나무 꼭대기에서 깨어나는 아침의 산들바람과 더불어 조그맣게 부르르 떨기도 합니다. 숲속의 따스한 기운은 축축한 숲일과, 이끼와, 증발하는 이슬 따위의 새로운 향기들을 땅으로부터 끌어모아 숲속 특유의 분위기로 우리를 매혹합니다. 숲과 오편한 분위기와 숨진 냄새들... 그리고 그 앞에는 산과 구름과 하늘의 풍경들- 숲속에 들어서면 살아있는 전람회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숲은 이제 마음속의 고향일뿐입니다. 어느날 숲속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재구에 큰기, 부러진 나무를 가지, 나뭇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속의 고향입니다. 숲속의 생명력과 활력이 존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조그마한 목소리들과 지극히 미미한 속삭임과, 지극히 경쾌한 재잘거림과, 지극히 오편한 속삭임이 숲속에 가득 있습니다. 태양이 높게 떠오르면 햇살의 줄기들과 덩어리들이 나타나서 점점 더 커지고 나무 꼭대기에서 깨어나는 아침의 산들바람과 더불어 조그맣게 부르르 떨기도 합니다. 숲속의 따스한 기운은 축축한 숲일과, 이끼와, 증발하는 이슬 따위의 새로운 향기들을 땅으로부터 끌어모아 숲속 특유의 분위기로 우리를 매혹합니다. 숲과 오편한 분위기와 숨진 냄새들... 그리고 그 앞에는 산과 구름과 하늘의 풍경들- 숲속에 들어서면 살아있는 전람회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숲은 이제 마음속의 고향일뿐입니다. 어느날 숲속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재구에 큰기, 부러진 나무를 가지, 나뭇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속의 고향입니다. 숲속의 생명력과 활력이 존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조그마한 목소리들과 지극히 미미한 속삭임과, 지극히 경쾌한 재잘거림과, 지극히 오편한 속삭임이 숲속에 가득 있습니다. 태양이 높게 떠오르면 햇살의 줄기들과 덩어리들이 나타나서 점점 더 커지고 나무 꼭대기에서 깨어나는 아침의 산들바람과 더불어 조그맣게 부르르 떨기도 합니다. 숲속의 따스한 기운은 축축한 숲일과, 이끼와, 증발하는 이슬 따위의 새로운 향기들을 땅으로부터 끌어모아 숲속 특유의 분위기로 우리를 매혹합니다. 숲과 오편한 분위기와 숨진 냄새들... 그리고 그 앞에는 산과 구름과 하늘의 풍경들- 숲속에 들어서면

◆91년 노래운동의 평가와 전망

'91년 노래운동의 전개

1991년 노래운동은 1990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노래운동집단의 양·질적 성장운동과 '민중음악협회'의 발족으로 매우 활발히 진행된 한 해였다. 다양한 노래운동 그룹들이 보다 더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해가면서, 전체적으로 볼때는 매우 입체적이고 다층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문명의 정서와 그 역사적 에너지를 넘어서 민중적 가락에 현실민중의 애환과 긴장을 그려 내는 '민중연구회'가 있고 새로운 사회의 주인공 노동자의 힘찬 모습과 독자적 삶의 포악한 논리에 정면대응하는 '노동자 노래단'과 '예술림', 노래모임 '새벽', 서구 취향적인 클래식 음악계에 대항하여 민중음악의 이론적, 실천적 토대를 갖추고자 하는 '민중음악 연구회', 미조직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도권과 비제도권을 오르내리며 건강한 삶의 유희를 유포해 주는 '노래마을'과 '노래를 찾는 사람들'과 정태춘, 안치환과 같은 민중가수 등 각 갈래마다 적지 않은 노래운동의 모임과 활동가들이 조직적인 활동을 벌인 한 해였다.

올 한해의 노래운동의 전개를 크게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 보았을 때, 상반기의 주요 활동은 아무래도 '민중음악

한 음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투쟁이 그것이다. 비록 제도권 선 정도 수위의 낮은 형태이지만, 하지만, 싸움의 진행과정에서 '민중음악'의 실제적 결집력을 확인하고 연대의 수위를 한 수준 끌어 올렸다는 면(현재 민중음악 산하로 음반법 개정 투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노랫사의 대표 최병선 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에서, 아울러 대중가수들의, 싸움에의 참여를 추동하며 진행되었다는 면에서 그 자체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하지만로 접어들면서 나타난 특징은 전반적인 정세의 침체와 맞물리면서 노래운동전열 또한 잦은 대중공연보다는 자체 내일을 다지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다 생각된다. 실제로 이 시기는 각 노래단체의 공연활동이 대하, 노조 등의 초청공연을 제외하고는 의욕적인 자체 기획물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와중에 유일하게 의욕적으로 '서문'기획이 기획제작한 '91, 다시 피는 꽃다지' 공연은 관객동원면에서, 기획 면에서 칭찬된 민중운동의 활성화를 일깨우는 대중들의 욕구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용한 공연이라 하겠다.

이 외에 1991년 한 해 동안 각 노래단체들의 활동상의 특징을 본다면 위에서 언급한 대



노래운동은 건강한 삶과 올바른 사회를 이루기 위한 모든 형식과 예술적 기재를 동원하여 형식화 해내는 작업이다. (사진은 백상재전대 만해광장에서 가졌던 정태춘의 공연모습)

강한 삶의 문화를 차단하는 독점자본과 그 지배세력이 있기에 아직도 노래운동전열의 활동은 그 대중활동에 있어 공연장의 제한, 제작물 유통상의 법적제한 및 제정의 부족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노래운동은 그 자체만의 기술적 진보만으로는 결코 유지할 수 없다. 건강한 삶과 올바른 사회를 이루려는 것이 노래운동의 목적이라면, 노

학문연구 활동의 심장부 역할 시급하다

◆출판부 활성화 방안

대학 학문연구 현황과 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배울 수 없는 것들의 하나는 바로 그 대학의 '출판현황'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현재 본교 출판부만을 담당하고 있는 출판부의 많은 문제점들은 본교 출판사업의 전망에 적잖은 회의를 느끼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로 창설 18년째를 맞고 있는 출판부는 예산이 '특별회계'로 처리되고 있어 자체내 수익금으로 그 해의 예산을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89년 4월 '등록금과 교과서대금 환부' 당시 대부분의 1학년 학생들에게 교과서대금을 환부해 준 이래 해마다 신입생들 대상으로 판매했던 교과서 판매 수익이 줄어들어 예산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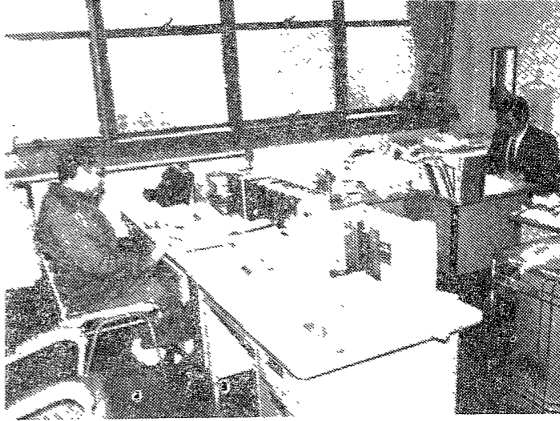
그런데 지난 89년 11월에 한 국물교전서 10권이 완간됨으로써 89년에 1천9백77권(4천7백45천6천원) 90년도에 2천6백59권(8천4백85천8천원) 91년도 9월 현재 5백90권(1천9백44천5천원)이 판매가 됨으로써 그중 8천3백여만원은 다시 학교수익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자녀와 올해는 불교전서 판매수익으로 모든 운영을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또다시 자급금이 적정됩니다"라고 말하는

출판부 현행운영은 출판부 예산을 학교당국에서 관리할 것과 학교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또한 출판부의 인원과 공간 문제에 있어서도 그 수준은 심각할 정도로 열악하다. 명실공히 대학 출판부라면 그 업무에 따르는 세부부서가 존재하고 그에맞는 최소인원정도는 배치해야 할데 불구하고 현재 본교는 3명의 인원으로 출판부가 운영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과 무리가 따르고 있다.

게다가 도서를 쌓아둘 창고도 변변치않고 환기시설도 미



◆현재 3명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출판부는 인력확보가 시급하다.

출판부에서는 지난 84년부터 본교 교수 33명에게 연구개발비 50만원씩을 지급하여 도서출판을 계획하였다. 이 결과

출판부에서는 출판부 예산을 학교당국에서 관리할 것과 학교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또한 출판부의 인원과 공간 문제에 있어서도 그 수준은 심각할 정도로 열악하다. 명실공히 대학 출판부라면 그 업무에 따르는 세부부서가 존재하고 그에맞는 최소인원정도는 배치해야 할데 불구하고 현재 본교는 3명의 인원으로 출판부가 운영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과 무리가 따르고 있다.

게다가 도서를 쌓아둘 창고도 변변치않고 환기시설도 미

출판부 예산을 학교당국에서 관리할 것과 학교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또한 출판부의 인원과 공간 문제에 있어서도 그 수준은 심각할 정도로 열악하다. 명실공히 대학 출판부라면 그 업무에 따르는 세부부서가 존재하고 그에맞는 최소인원정도는 배치해야 할데 불구하고 현재 본교는 3명의 인원으로 출판부가 운영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과 무리가 따르고 있다.

게다가 도서를 쌓아둘 창고도 변변치않고 환기시설도 미

안정적 예산확보로 양·질적 출판활동 담보해야 공간과 인력확보로 자체내 기획사업 과제

출판부 예산을 학교당국에서 관리할 것과 학교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또한 출판부의 인원과 공간 문제에 있어서도 그 수준은 심각할 정도로 열악하다. 명실공히 대학 출판부라면 그 업무에 따르는 세부부서가 존재하고 그에맞는 최소인원정도는 배치해야 할데 불구하고 현재 본교는 3명의 인원으로 출판부가 운영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과 무리가 따르고 있다.

게다가 도서를 쌓아둘 창고도 변변치않고 환기시설도 미

출판부 예산을 학교당국에서 관리할 것과 학교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또한 출판부의 인원과 공간 문제에 있어서도 그 수준은 심각할 정도로 열악하다. 명실공히 대학 출판부라면 그 업무에 따르는 세부부서가 존재하고 그에맞는 최소인원정도는 배치해야 할데 불구하고 현재 본교는 3명의 인원으로 출판부가 운영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과 무리가 따르고 있다.

게다가 도서를 쌓아둘 창고도 변변치않고 환기시설도 미

출판부 예산을 학교당국에서 관리할 것과 학교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또한 출판부의 인원과 공간 문제에 있어서도 그 수준은 심각할 정도로 열악하다. 명실공히 대학 출판부라면 그 업무에 따르는 세부부서가 존재하고 그에맞는 최소인원정도는 배치해야 할데 불구하고 현재 본교는 3명의 인원으로 출판부가 운영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과 무리가 따르고 있다.

게다가 도서를 쌓아둘 창고도 변변치않고 환기시설도 미

출판부 예산을 학교당국에서 관리할 것과 학교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또한 출판부의 인원과 공간 문제에 있어서도 그 수준은 심각할 정도로 열악하다. 명실공히 대학 출판부라면 그 업무에 따르는 세부부서가 존재하고 그에맞는 최소인원정도는 배치해야 할데 불구하고 현재 본교는 3명의 인원으로 출판부가 운영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과 무리가 따르고 있다.

게다가 도서를 쌓아둘 창고도 변변치않고 환기시설도 미

내용과 대중성 확보하는 기술적진보 필요

공연장·제작물 유통의 법적제한 극복시급 정태춘·안치환등 민중가수들의 활동 활발했던 한해

협회'를 주축으로 한 연합공연들을 볼 수 있다. 첫째는 3월 30, 31일 양일간 연세대 노전극장에서 있었던 '91, 자! 우리 손을 잡아' 공연이고 두 번째는 5월 한달동안 있었던 수많은 민중연사들의 즉흥을 추모하는 수많은 형태의 거리 공연이었다.

전자는 기획과정에서부터 단지 노래운동 전열의 연대만이 아닌 전체 민중운동전열의 연대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추후 날씨에도 불구하고, 양일간 총 동원인원 4만여명을 기록했다는 것은 노래운동의 대중호소력과 동원면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 후자의 경우 노래운동 전열이 대중을 찾아 직접 거리의 거두 문화선전대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그의와 형식면에서 노래운동전열이 좀 더 많은 부분 고민해 보아야 할 귀중한 선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아울러 이 시기는 민중음악 전열이 연대하여 정부와 최후로 벌인 정치적 투쟁이 전개된 시기이기도 하다. 90년 벼두부 시 정부와 민중당원회의 제출

로 각 단체가 자기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해 가면서 자기 대중과 내용을 확보하고 다지는 시기였다.

'노동자 노래단'과 '예술림'이 '서울 노동자 문화예술운동연합'에 합체 속해 있으면서 그 한층의 기본 계획과 내용을 거의 함께 하면서 노동자 문제운동의 지원과 노동운동의 현장 지원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있고, 이에 비해 80년 이후 노래운동의 주요한 중심토대가 되었던 '새벽'은 직접적 공연활동 보다는 노래문화의 전경과 새로운 실천 형태의 모색을 위해 여기저기 실험적 작업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노래마을'과 '노래를 찾는 사람들'은 왕성한 공연활동을 전국적으로 벌이면서 제도권과 비제도권 사이를 오르내리며 민중가요의 대중 보급과 민중운동 이념의 대중화에 힘쓰는 시기이기도 하다.

1991년 노래운동은 전개과정상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면이 있다.

몇몇 대중가수들의 움직임이 민중운동전열과 적지않게 연대

원류가 되었던 대학 노래대의 사회적 활동이 감소되고 학내 활동으로의 귀속경향이 그 특징적인 아마추어리즘으로 인하여도 나타나는 반면, 그러한 활동의 평가와 반성적에 얼마 전 '전대협 노래단'이 발족되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일이라 본다.

91년 한해의 노래운동을 돌아보면 아직도 노래운동은 많은 부분 기술적 진보가 뒤처져 있음을 자인한다. 본격적으로 대중유통을 정착하고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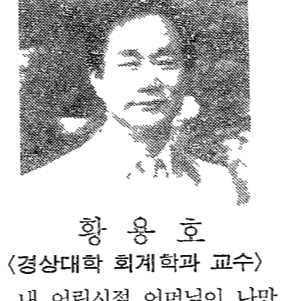
래운동은 그 모든 형식과 예술적 기재를 동원하여 그를 향상화해내는 것이다.

다기보다는 1992년은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패배주의, 냉소주의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형성해 내고 그를 극복하려는 데 있으며 모든 노래운동의 활동가들은 이를 위해 자신의 무기를 보다 더 갈고 닦아야 하겠다.

류상기 (노래를 찾는 사람들 총무)

국 국학의 걸작인 푸에 양주동박사의 사상과 학문세계에 대한 서적 '양주동연구'를 출판했다.

이 책은 일제치하에서 이미 '조선고고연구'를 펴내고 광복후에는 국어문학은 물론 동서양의 고전과 현대를 두루 섭렵하면서 국학의 뿌리를 간추렸던 양주동박사에 대한 연구들을 집대성하고 있으며 '양주동의 문화세계' '양주동의 비평' '양주동과 국어학'의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음사 권 1·1만2천원)



황용호 (경성대학 회계학과 교수)

내 어린시절 어머니가 나란 미워하신다고 잠 못 이루고 슬피하던 그 밤은 달이 휘영청 밝은 초가를 지녔었다. 나는 대수롭지도 않은 일에 나보다 열살이나 많은 형에게 역정을 부리고 꽤 덩실덩실 투정을 부렸다. 어머니는 날 안으시고는 미나리 강수에 잠겨 놓겠다고 하셨고, 나는 달이 담겨 있는 미나리 강을 내려다 보고 너무 무서워서 혼절 할 뻔 하였다. 원래 글 재주가 없던 이 어린 자리를 피해서 내가 담과 강이 연으로 조약들을 내치고 싶은 심정 만은 아니고, 오늘의 인생 바다에 조약들을 던져 부러진 달을 건져 인생의 보물창을 키워 갈 사람들도 있겠지 하고 들을 던져 본다.

◆강경: 친단 의학으로 임종

말하다 전경에

핀 담배의 유해를 계속 홍보하며 사무실, 강의실, 국내 비행기 등 공공 장소에서 금연을 실시하고, 그도 부족해서 국민의 20명의 1도 안되는 흡연 인구를 40명의 1로 줄이겠다는 5개년 계획까지 세우고, 공공장소에서 폐암의 원인이 되는 담배 흡연을 법제화 한 우리에 어떻게 한국에 대해 담배 수출을 돕겠다는 건지, 무역거래업 301조를 들먹거리며 수입을 강요 하느냐고 의외에서 정부를 힐난 한 미국의북핵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 교정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경: 배지는 제 오물을 깔고 자면서 그 속에서 먹을것도 찾아 먹는다. 호랑이는 한 번 지나고도 다시 찾지 않을 그 산길에서도 반드시 제 오물을 물어다 두고 간다고 한다. 우리의 강의실, 복도, 교정, 특히 축제 후의 교정은 어떠한가?

◆늘름: 석사과정 혹은 박사 과정도 아닌데 야간 학습이란 제한된 시간 때문에 한 과목의 강의를 하루에 연속되게 모여서 할때 그 학습 효과는 어떠한가?

◆유구: 남의 공부야 이찌되든 교실에서 5m도 안 떨어진 교정에서 죽구를 하는 사람은 무지한가, 불성실인가? 대중운동장과 만해광장은 무엇에 쓰려하는가?

◆재희: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은 올림피아 이후 정부의 무계획과 단결, 행정적 결정을 탓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민주정치를 원하면서 자유롭게 살기를(간섭을 받지않으려는) 원한다는 것과 상충을 노골화한 것이 아닌가? 이제라도 내 인생을 자기 책임하에서 살아갈 각자의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공의: 월남전 반대 스트라이크를 하던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대학광장에서 주지사가 주정부 군을 동원하여 스트라이크 군중에게 저지선을 지정하고 그 선을 넘으면 '발포하겠다'고 경고 하였고, 이성을 잃은 군중은 그 선을 넘었고, 주정부 군은 주지사 명에 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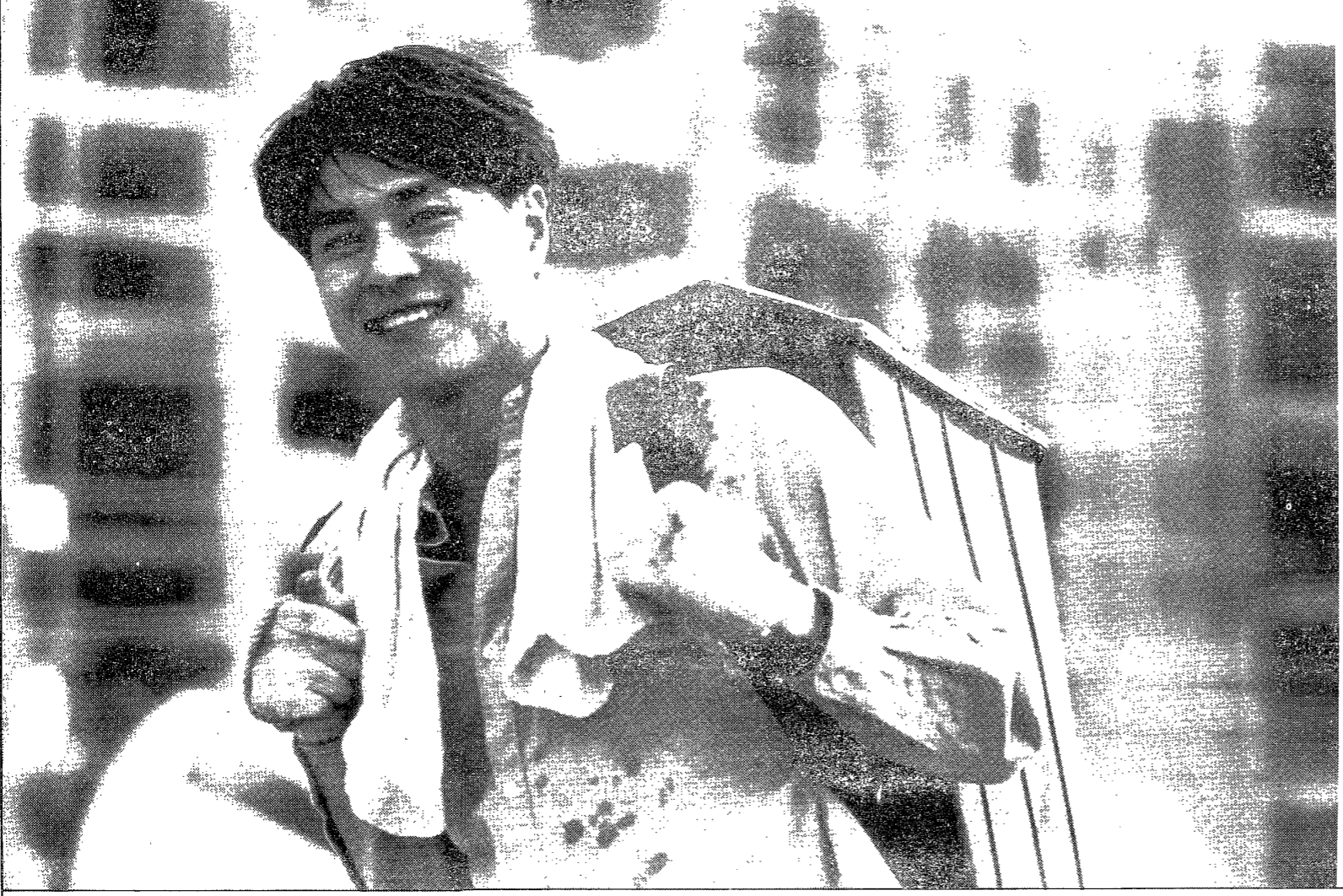
내 탓

이 기한을 난사 3-4명이 총탄에 맞아 죽는 것이 TV화면에 나왔다. 그 지사는 우리나라 4.19때 이런 장면을 시형은 커녕 말 한마디 나무랄도 받지 않았다. 왜 범 집행자의 방법이 없었다고 대담 할것인가 내가 탈법을 하니, 나도 탈법을 해도 된다고 할 것인가.

◆내 탓: 학기가 끝나면 종종 좋은강의를 못한 나의 불만은 크다. 때로는 학점이 짜다고 불평도 받는다. 유독 내 학점만 2점인가.

몇년전에 미국 모대학에서 나와같은 과목을 강의하는 학급에서 몇 학기 다른 교수의 강의를 한바 있다. 각 강의의 실용은 많이 하지 않고, 많은 문제 풀이를 하고 있었다. 설명 시간의 빈약한 할애를 들었다. 고개에 충분히 설명되어있고 학생들은 이미 읽고 이해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들 같이 예습 및 복습을 시키지 못하는 것도, 좋은 학점을 취득 하지 못하는 것도...모두 내 탓이다.

SAM YANG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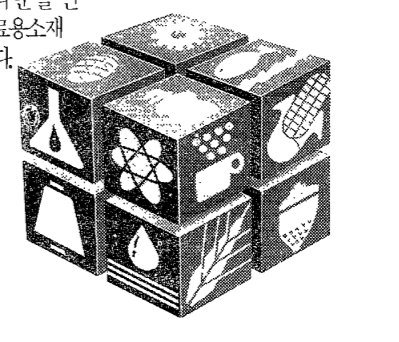
남들은 왜 고생을 사서하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우리에게겐 더 많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꿈의 가치를 느낄 줄 아는 젊은이— 삼양그룹은 이런 젊은이들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개척자 정신— 이것이 바로 삼양그룹이 지난 67년간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정신입니다.

1924년 이땅에 산업의 씨앗을 뿌린 이후 섬유, 식품, 사료, 기계, 화학부문에 걸쳐 기술의 문을 연 삼양의 개척정신은 이제 새롭게 고분자, 의료용소재 및 제약, 발효공업 등 첨단산업에 도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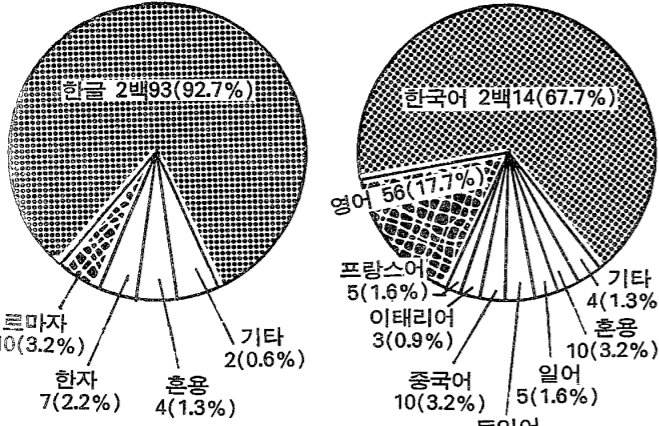
젊은이들의 뜨거운 기쁨, 진지한 눈빛속에 내일을 이룩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의 진취적인 기상처럼 삼양그룹은 풍요로운 내일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주식회사삼양(사) 纖維, 蠶絲, 飼料, 水産, 精密(化學) ●삼양중기주식회사 ●삼일포도주식회사 ●삼남석유화학주식회사
- 삼양화학주식회사 ●삼양제분주식회사 ●디엔삼인피이버 ●삼양중환연구소 ●삼양정 ●삼양정화학

외국어간판 즐비... '제2의 이태원' 방불

학교주변 상호명 실태



(표1) 간판에 표기된 문자의 국적

(표2) 상호명의 국적

국적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중국어	독일어	일본어	혼용	기타	계	비율(%)
호프	9	9	1	1	6			1		27	100
레스토랑	33.3	33.3	3.7	3.7	22.3			3.7		100	100
카페	43.1	34.2	7.8	2.0	2.0	5.9		2.0	2.0	100	100
부속점	34	5			4			2	2	1	100
합계	70.8	10.4			8.3			4.2	4.2	2.1	100

(표4) 음식점 상호명의 국적

국적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중국어	독일어	일본어	혼용	기타	계	비율(%)
음식점	66	31	5	2	5	9	1.6	3.1	1.6	126	100
가속병원	52.4	24.6	4.0	1.6	4.0	7.1	1.6	3.1	1.6	100	100
차량	25	3						2		30	100
오토바이	83.3	10.0						6.7		100	100
문구	16	1			1			2		20	100
서점	80.0	5.0			5.0			10.0		100	100
당구	17	2								19	100
오락	89.5	10.5								100	100
미용실	10	1								11	100
미용실	90.9	9.1								100	100
기타	55	14		1	4			3	2	79	100
기타	69.6	17.7		1.3	5.1			3.8	2.5	100	100
계	214	56	5	3	10	9	5	10	4	316	100
비율	67.7	17.7	1.6	0.9	3.2	2.8	1.6	3.2	1.3	100	100

(표3) 업종별 상호명의 국적

는 것이 음식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 만큼 음식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표4)와 같이 음식점을 구분, 상호명의 국적을 살펴보았다.

먼저 호프의 경우 외국어사용률이 66.7%로 이 가운데 영어가 33.3%로 나타난다.

지역의 기능적특색 다시말하면 그 지역에 어떠한 업종이 많이 분포하는가에 따라 언어경관도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충무로의 경우 굳이 외국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가속병원이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는 것은 지역성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호프-레스토랑-카페 한국어 사용 30% 우리말·글 찾기,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야

포 하이마트, 라인, 레넨, 도이치 호프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어의 사용도 22.3%(6건)나 되는데 이는 호프가 독일에서 유래한다는 점과 독일분위기를 자아내고자 하는 상점주인들의 의도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 레스토랑과 카페에서는 한국어 43.1%, 영어 34.2%로 나타나고 있으며 프랑스어가 7.8%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한편 부속점, 식당, 주점에서는 한국어 사용률이 70.8%로 압도적이며 중국어는 중국식당에서 사용된다. 영어의 사용은 10.4%로 다른 업종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상 업종별 상호국적을 분석한 결과 레스토랑이나 카페, 호프 등 서양음식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상호명에 있어서도 외국어를 선호하고 있으며 일반식당, 주점에서는 한국어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상인의 상호선호도 상인이 상호를 정할때는 일반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을 사용한 가에 따라 언어경관도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충무로의 경우 굳이 외국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가속병원이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는 것은 지역성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이제 그나마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고 적어도 우리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지성인들이 우리말 우리글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수행돼야 할 것이다.

정향곤 (사범대 지리교육과)

언어는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며 한 세대에서 다음세대로 문화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로 한 민족 한집단의 생활양식을 유지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

언어는 유형 또는 무형의 문화경관을 이룩하는데 문자로 나타난 도로의 표지판, 상점의 간판들은 유형의 문화경관의 대표적 예이다.

이런 조사에서는 우리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회계로 4.5개의 도로변과 후문주변에서 중대부속병원입구까지 총3백16개의 상점을 조사, 각종 상호에서 나타난 언어경관을 통해서 우리생활속에 침투한 외래문화의 실상을 살펴보았다.

간판에 표기된 문자의 국적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한자를 사용해왔으나 8.15해방이후 서구와의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로마자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우리말사용운동과 우리글찾기 운동을 통해 우리글찾기에 힘쓰는 외래문화의 실상을 살펴보았다.

(표1)은 조사대상 상점의 간판에

상호명의 국적

상호에 나타난 어휘를 분류한 것이 (표2)이다. 한국어 67.7%(2백14건)로 가장 많고 영어 17.7%(56건), 중국어 3.2%(10건), 혼용 3.2%(10건), 독일어 2.8%(9건)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프랑스어, 이태리어 등 외국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편 외국어사용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표3)은 조사지역 상호에 사용된 언어를 업종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상점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점의 외국어사용률이 가장 높다.

음식점 상호명의 국적 대학가문화가 가장 잘 대변해주

노동자들의 진솔한 삶의 터전

'영등포노동자문화회'를 찾아서



회원들은 요즘 문학의 밤, 작품집발간 준비로 한창 바쁘다.

"힘찬 부쟁/단결의 노래 해방의 몸짓/아무리 악을 쓰고 토해 보아도/지나온 수 백 수 천의 인내와/진지리치던 노동의 몸부림..." 영등포노동자문화회 유동범 시 "우리가 노동자다"중에서.

영등포에 위치한 어두운 골목을 걸어갈수록 오스레 보이는 건물에 섰을 때와는 달리 환하게 스며들던 7-8명의 화가에게만 웃음과 애기소리, 그리고 한쪽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책들은 쉼없는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준다.

'영등포노동자문화회' 말그대로 영등포에 격을 둔 노동자들이 삶속에서 일어나는 일, 고민하고 느끼는 것들을 글로 표현하는 곳이다.

특히 '글사랑'에서 발전해 지난 89년 10월부터 발족준비, 올해 3월 9일 창립총회를 가진 영등포노동자문화회는 20여명의 노동자 구성원에게 해직교사, 운전기사, 현정노동자 등 다양하며, 20세 청년부터 39세까지까지 있다.

이곳을 찾았을 때 회원들은 오는 30일 성문밖교회에서 열린 제2회 문학의 밤 행사준비를 한창 바쁘다. 문학의 밤은 영등포노동자문화회 주최 제2회 일하는 사람을 위한 참문학 이야기 문예교실 졸업식과 함께 열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현재 이 모임은 시만 산문만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시만은 매주 화요일에 모여서 의무(?)으로 창작한 시에 대한 합평회를 갖고, 주말에는 시사토론회나 문예이론에 대한 공부를 한다. 또 산문만은 매주 금요일에 만나 집단창작과 함께 문학공부를 한다. 이들이 다루는 내용은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것으로 주로 노동현장, 가정, 등지에 등이다.

지난해 '그리우며 만나야 한다'라는 작품을 낸 영등포노동자문화회는 현재 문학의 밤 행사와 말려져 지금까지 써 온 시와 박종수시사를 소재로 한 1백 60여개의 집단창작소설을 문집으로 펴낼 예정이다.

5·6월부평, 범민족대회에도 참가해 부평의지를 한껏 드높였던 영등포노동자문화회는 세원노조파업투쟁, GB전자파업투쟁에 선전부문을 함께 참여해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다.

한편 지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문화공간' 선거공약 실천다

문화공간에는 문화공간의 부재에 따른 불편한 요소들이 산적해 있다. 강의시간외의 여가시간을 보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문화공간의 부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공약들이 여느때보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많이 제기되었다.

예를들면 문화공간의 부족에 따른 불편한 요소들이 산적해 있다. 강의시간외의 여가시간을 보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문화공간의 부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공약들이 여느때보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많이 제기되었다.

공약남발보다는 작은실천을

실적으로 모든 공간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교당국에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경청해 건의하고 실현가능한 것부터 실천해 나가자라고 개선해나가는 책임성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基)



김태준 (5)



최대 발행부수, 최대 정가 독자, 이 시대 최고의 정론 시사주간지



J는 인기가 좋습니다. 그가 있는 우리들의 자리는 화제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당 차기대권후보에서 K대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J는 민비黨 내의 계파사정, 국민적 정서와의 호흡, 야당 및 지역감정과 대비, 군 및 재벌의 호흡 등 다각적인 분석으로 '셀'을 푸는데, 우와! 정치평론가 지리 가깝다. '우리 경제 왜 요요양 요요양'이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뜬구름잡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마침내 J가 입을 열면 정부의 잘못은 어떤 것이고, 기업가의 잘못은 어떤 것이고, 국민의 잘못은 어떤 것인지 마치 경지정리를 해놓은 들뜬눈을 보는 것처럼 눈앞이 개운해지는 겁니다.

정치·경제·사회 쪽의 화제뿐만 아니라 '왜 요즘 여자들의 스커트 길이가 짧아져나' '원단에서 민중예술이 운동권과 재야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인가' '강수연이 상단 베니스 영화제와 이혜숙이 상단 콘트리를 영화제에 어떻게 다녀나' 등 그의 화제와 '셀'은 전방위에 걸쳐 거의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J가 없으면 심심합니다. J의 그런 인기의 비밀은 알고보니 그의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23년간이나 읽어오고 있는 '주간조선'에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들이 만드는 정론 시사주간지, '주간조선'을 읽고 와서 우리들 앞에 놓아주셨던 것입니다.

友情이 영원하려면
話題가 무궁해야 합니다
話題의 샘이 깊은 週刊朝鮮은 그러므로 우리들 청춘의 妙藥입니다.

펄펄 뛰는 현장감

週刊朝鮮

정기구독안내 • 서울 735-2144 • 부산 463-5845 • 대구 423-9484 • 광주 222-3966 • 춘천 55-9796 • 김포 41-1117 • 전주 605-1008 • 대전 254-7009 • 전주 836-8236 • 제주 42-0530 • 김 1, 300원